

“큰소리로 떠들고 웃는 것이 평화, 한국서 매일 뼈저리게 느껴”

전쟁통 첫 방한 우크라 학생 베레즈나·자이첸 사사의 한국 체험 화랑인터내셔널 초청 8일간 체류... “꿈 꿀순 없어도 만들고 싶어”

“한국에 와서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온 베레즈나 사사(17·정수리학교 11학년)와 자이첸 사사(21·국립세무종합대학원 1학년)의 한국 방문 소감이다.

두 학생은 26일 “한국에 와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다”며 “우크라이나에서는 포성이 들릴 때마다 소리에 반응하고 ‘억’하고 놀라는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며칠 동안 큰 소리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웠다”고 털어놓았다.

하르키우에 사는 베레즈나와 드니프로에 거주하는 자이첸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화랑인터네

셔널(이사장 박윤숙)의 초청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이들은 “여전히 포성이 끊이지 않는 전쟁 중이어서 무엇이 되겠다고 꿈은 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저 평범하게 공부만 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보니 그래도 꿈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혔다.

베레즈나와 자이첸은 18일 오전 각각 사는 곳에서 출발해 기차로 각각 11시간, 17시간에 걸쳐 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만나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버스로 12시간 이동한 뒤 다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2시간 날아가 대기하다 인천공항행 비행기로 갈아탄 뒤 11시간 만에 방한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늦어도 24

시간이면 올 수 있었지만 자그마치 5일이나 걸렸다.

둘은 23일 서울 서초구 K-호텔에서 열린 화랑인터내셔널 한국 지부 총회에 초청됐고, 이후 남산타워와 강남 일대, 경복궁 등 서울 곳곳을 돌아보며 한국 문화 체험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화랑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에 3개 지부를 포함해 한국, 몰도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필리핀,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 61개 지부를 두고 있다.

베레즈나는 정수리학교 화랑지부, 자이첸은 국립세무종합대학 화랑 지부에 각각 3년 전 가입해 한국어를 배우고 현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했

다.

베레즈나는 “대학에 가려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이웃 국가로 유학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 형편은 못된다”고 아쉬워했다.

두 학생은 “포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린다. 파편이 거꾸로 튀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날아들기도 한다”며 “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도 한국에서 꿈을 꾸고 힘을 얻기 위해 용기를 내서 왔다고 전했다.

자이첸은 “지금 가장 큰 소망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라며 “동번역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서 유학한 뒤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쟁으로 1년 넘게 공부를 못하다가 4개월 전부터 학교 공부를 시작했다. 대부분 여학생으로 남자 학생들은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인도적 지원품을 군부대에 전달하는 등 봉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온 베레즈나 사사(왼쪽, 17·정수리학교 11학년)와 자이첸 사사(21·국립세무종합대학원 1학년)는 “한국에 와서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알았다. 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일매일 친구들에게 소셜미디어(SNS)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사진을 공유한다. 사진 수천장을 휴대전화로 찍었다면서 “돌아가면 사진을 보면서 한국의 발전상 등에 관해 이

야기할 것”이라고 좋아했다.

“과거 한국도 전쟁을 겪었다는 사실을 책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라워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한국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美연방센서스국 “2020년 한인 인구 199만명”

10년전보다 17% 증가... 미 전체 인구의 0.6%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정부의 인구조사인 2020년 센서스 결과를 분석하면 재미동포 인구는 198만 9천519명이라고 밝혀졌다. 이는 2010년 170만여 명보다 약 17% 증가한 수치다.

미국 총인구 3억3천144만9천 281명 가운데 한인 인구는 0.6% 수준이다

2020년 통계에서 한인인과 현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을 제외하면 150만 8천575명으로, 10년 전보다 한인 인구는 5.9%, 혼혈 인구는 16.5% 증가했다. 이민 1세대 인구는 성장률이 둔화하는 반면 혼혈 인구는 증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 인구 10명 중 3명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주 한인 인구는 56만4천15명(혼혈 포함)이다. 이 가운데 LA 카운티는 23만여



연방 정부의 인구조사인 2020년 센서스 결과를 분석하면 재미동포 인구는 198만 9천 519명이라고 밝혀졌다. 이는 2010년 170만여 명보다 약 17% 증가한 수치다. 사진은 미동부추석대잔치에 참가한 한인들.

명, 오렌지카운티는 11만6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재미동포 인구 가운데 여성은 107만5천947명으로, 남성 91만3천572명보다 많다.

재미동포 인구는 중국계(520만5천461명), 인도계(476만8천846명), 필리핀계(443만6천92명), 베

트남계(229만3천392명)에 이어 아시안계로는 5번째다.

한국 외교부가 조사한 2021년 재미동포 인구는 263만3천777명이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유학생과 일반 체류자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학생들이 23일, 24일 커뮤니티 요청으로 한국전통예술품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기원부, 작양지중, 모듬북, 설장구 공연(사진 제공-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무용단, 美에 한국문화 알리 필라델피아 가을 예술 축제 등에 출연... 미국인들 “원더풀!”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학생들이 23일, 24일 커뮤니티 요청으로 한국전통예술품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23일 김멜센터가 주최하는 필라델피아 가을 예술 축제에서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예술단이 한국 전통 공연예술을 선보였다.

23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발레, 오페라, 합창 등이 무대에 올려지는 전체 행사 중 페렐만 관(Pereleman)에서 오후 1시35분부터 20분 가량 “한국 예술과 문화”라는 제목으로 기원부, 부채춤, 모듬북을 공연하여 현지 커뮤니티에 한국 전통의 맛을 소개했다.

관중들은 미국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발레와 합창 속에서 특색있고 독창적인 한국무용과

국악에 큰 호응을 보였다. 24일에는 랜스데일 소재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최하는 문화의 밤 행사에서 설장구, 기원부, 장작무용 작약지중, 모듬북을 공연했다. 한국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김케이트 교사는 지난 1월 이매방류 기원부를 전수받은 학교 무용단이 학생들에게 좀 더 흥미로운 안무로 레퍼토리를 바꾸는 중이며, 전통 기원부 또한 언젠가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29일

TCNJ 한인학생회 추석축제, 10월 7일 한국문화재단 주최의 필라델피아 러브파크에서 하는 김치 페스티벌, 10월 14일 델라웨어 한인회 주최 델라웨어미술박물관에서 하는 델라웨어코리아페스티벌 등 커뮤니티의 다채로운 행사 초청공연 일정이 계속되고 있다.

Coway

• 정수기 • 청정기 • 비데 • 연수기 • 안마의자(벤탈)

김선희 Sun Hee Kim

Cell: 646-320-2872

매장: 플러싱 한양마트 (신한은행 건물)

P.O.S. SYSTEM

Restaurant, salon, retail, Liquor store, All business

500.00 Down
30.00 Monthly

With Merchant Service Activation
Maintenance + Insurance Include

917.543.8111

유한 정비 · 바디

바디크레임, 인스펙션, 타이어, 토탈정비

718-461-1266
718-461-1700

132-39 34 Ave. Flushing, NY

K GUARDIANS
kguardians.com

그리요

K가디언스 창립 1주년

상상초월

1ST ANNIVERSARY SPECIAL

사은대잔치

마지막찬스1

K가디언스 1세트 구입시
K가디언스 1세트+보르피린을
덤으로 드립니다

Buy 1 Get 1 Free + Gift

5종세트 \$250 구입시

FREE

value \$250 + value \$120

value \$370 덤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찬스2

K가디언스 2세트 구입시
K가디언스 2세트+콜라겐 크림
+보르피린+마스크팩 2박스를
덤으로 드립니다

Buy 2 Get 2 Free + Gift

5종세트 \$500 구입시

FREE

value \$500 + value \$120 + value \$150 + value \$60 (2 Boxes)

value \$830 덤으로 드립니다

*행사기간: 9/10~9/30까지 *300개 한정으로 제품이 조기품절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K GUARDIANS
kguardians.com

코리아빌리지 1층
플러싱 한양마트 내

T. 516-833-0333
150-24 Northern Blvd #G7 Flushing, NY 11354

T. 718-218-3105
150-5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Business Hours
Mon - Sun: 10am - 7pm
Open 7 Days